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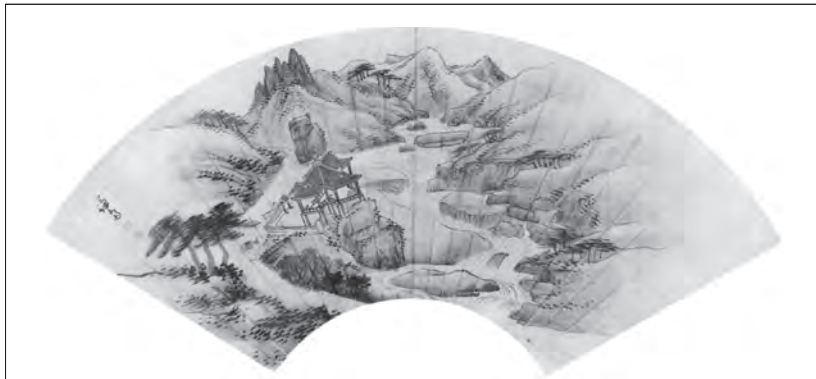
제 5 교시

제2외국어/한문 영역(한문 I)

성명

수험 번호

1.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

교사: 이 작품은 겸재 정선이 정자의 정경을 그린 것이랍니다. 길가에는 세 그루의 소나무가 서 있고, 물이 흘러내리는 냇가 너른 바위 위에 기와지붕이 날아갈 듯한 멋진 정자가 보이지요?

학생: 네, 멋져요. 주변의 경치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정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?

교사: 洗(㉠)亭입니다. 인조반정 때 이귀(李貴) 등이 이곳에 모여 광해군의 폐위를 모의하고, 거사 후에 이곳의 맑은 물로 칼을 씻었다는 고사에서 이 이름이 유래했다고 하네요.

- ① 劍 ② 檢 ③ 儉 ④ 刑 ⑤ 刻

2.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한자는? [1점]



- ① 巧 ② 安 ③ 交 ④ 友 ⑤ 支

3. 같은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1점]

<보 기>			
ㄱ. 墮 - 落	ㄴ. 利 - 害		
ㄷ. 高 - 低	ㄹ. 忍 - 耐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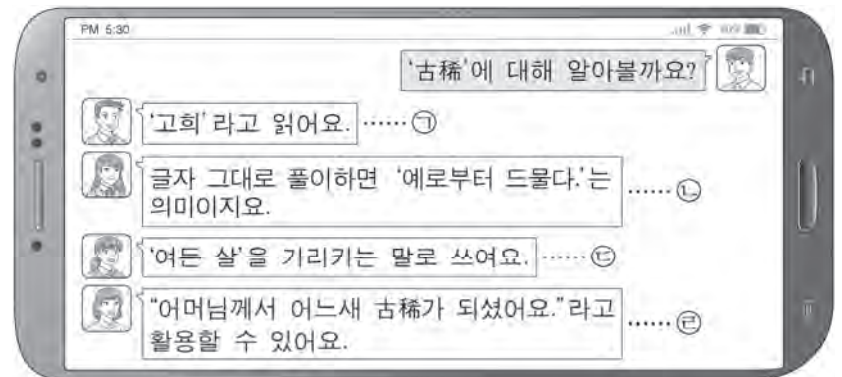
- ① ㄱ, ㄷ ② ㄱ, ㄹ ③ ㄴ, ㄷ
④ ㄴ, ㄹ ⑤ ㄷ, ㄹ

4. ㉠과 ㉡에 해당하는 한자의 음이 모두 옳은 것은? [1점]



- | | | | |
|-----|---|-----|---|
| ㉠ | ㉡ | ㉠ | ㉡ |
| ① 지 | 급 | ② 시 | 급 |
| ③ 지 | 흡 | ④ 시 | 흡 |
| ⑤ 지 | 염 | | |

5. 대화의 내용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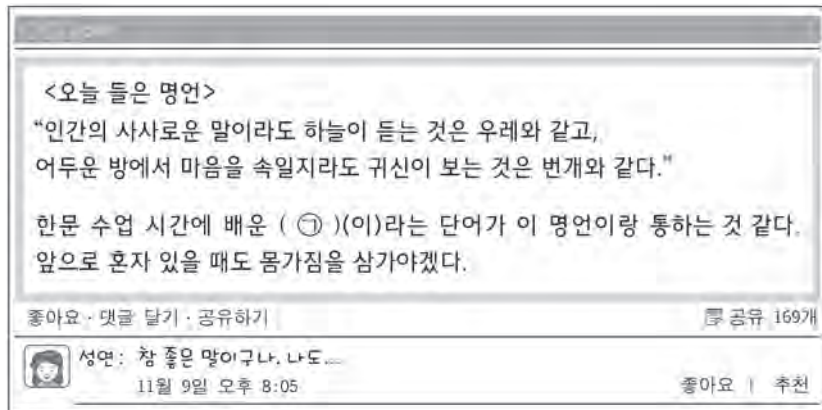
- ① ㉠, ㉡ ② ㉡, ㉣ ③ ㉣, ㉤
④ ㉠, ㉡, ㉣ ⑤ ㉠, ㉣, ㉤

6. 그림의 한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의 의미와 관계있는 것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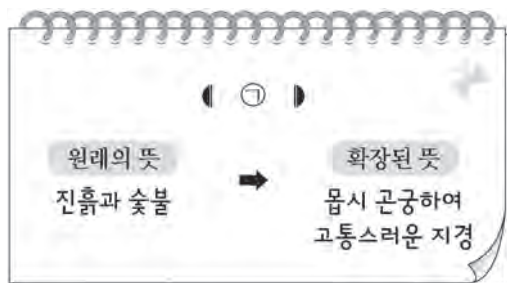
- ①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야.
②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.
③ 그 일은 시작만 거창했지, 흐지부지되었어.
④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, 그 말이 맞네.
⑤ 예방주사 맞아 두길 잘했어, 독감이 유행한다니.

7. 글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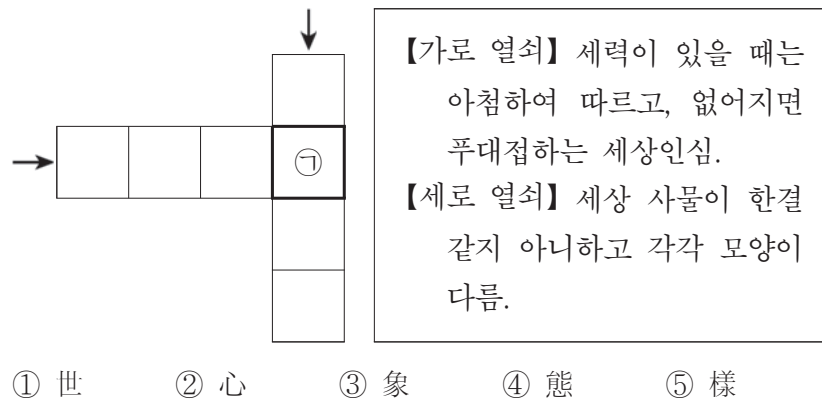
- ① 清廉 ② 愼獨 ③ 獻身 ④ 勤勉 ⑤ 配慮

8.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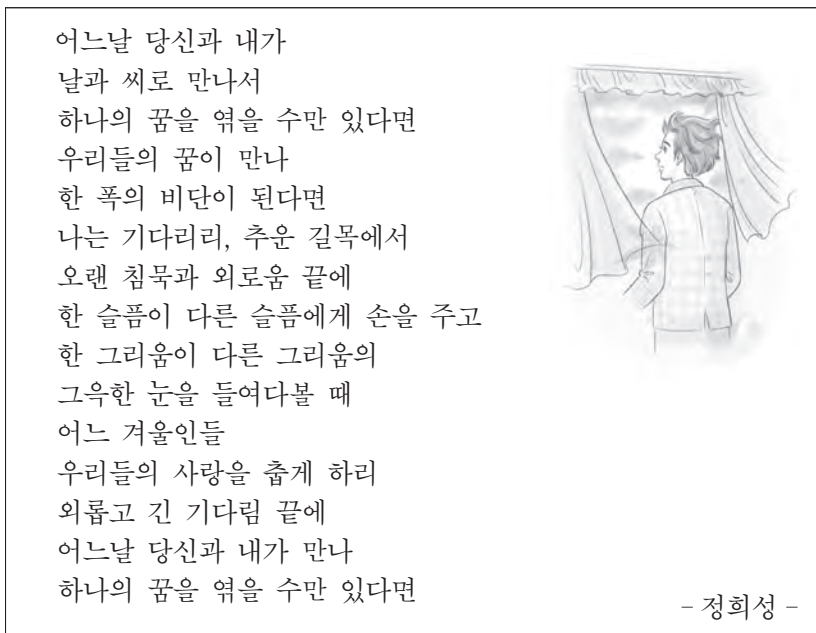
- ① 塗炭 ② 崩壞 ③ 涉獵 ④ 探查 ⑤ 捕捉

9.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, ㉠에 들어갈 것은?



- ① 世 ② 心 ③ 象 ④ 態 ⑤ 樣

10. 시의 내용과 관계있는 것은? [1점]



- ① 螢雪之功 ② 脣亡齒寒 ③ 胡蝶之夢
④ 昏定晨省 ⑤ 鶴首苦待

11. 글의 내용으로 보아 ㉠과 ㉡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?

- 一日行惡, 禍雖未至, 福(㉠)遠矣.
○ 終身行善, 善猶不足, 一日行惡, 惡(㉡)有餘.

- 『명심보감』 -

- ① 自 ② 雖 ③ 未 ④ 誰 ⑤ 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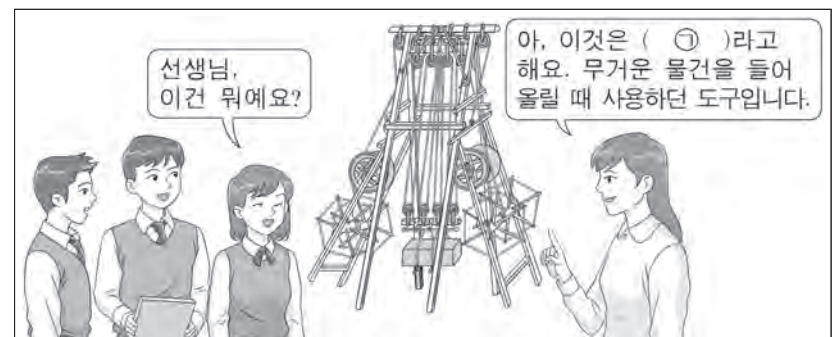
12. ㉠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것은?

水去不復回, ㉠言出難更收.

- 『추구』 -

- ① 言 ② 出 ③ 難 ④ 更 ⑤ 收

13.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

- ① 絹織機 ② 舉重器 ③ 投石具
④ 測雨器 ⑤ 申聞鼓

14.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?

己過則默, 人過則揚, 是過也大矣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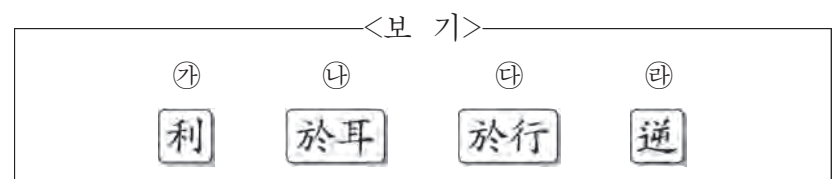
- 『상춘고』 -

- ① 人一能之, 己百之.
② 己所不欲, 勿施於人.
③ 不患人之不己知, 患不知人也.
④ 以責人之心, 責己, 恕己之心, 恕人.
⑤ 道吾過者, 是吾師, 談吾美者, 是吾賊.

15. ㉠에 들어갈 내용을 <보기>의 카드로 완성할 때,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?

良藥, 苦於口, 利於病, 忠言, (㉠).

- 『설원』 -



- ① ㉠ - ㉡ - ㉢ - ㉣ ② ㉠ - ㉡ - ㉣ - ㉢
③ ㉡ - ㉡ - ㉠ - ㉣ ④ ㉡ - ㉢ - ㉠ - ㉣
⑤ ㉡ - ㉣ - ㉡ - ㉠

16. 시나리오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

S#33. 황성 안

심 황후를 위해 천자가 황성 안에서 맹인 잔치를 연다. 심 봉사도 이 잔치에 참석하여 원통한 사연을 고한다.

심 봉사: 저는 황주에 사는 심학규입니다. 아내 잃고 강보에 싸인 딸을 동냥짓 먹여 길러 열다섯이 되었는데, 이름은 청이라 하옵니다. 효녀인 청이는 제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삼백 석을 받고 인당수에 몸을 던졌사옵니다.

심 황후: (깜짝 놀라며) 아버지! 공양미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수궁에 갔던 아버지 딸 청이오. 눈을 떠서 저를 보옵소서.

심 봉사: 이게 웬 말이나? 내 딸 청이가 살아 있단 말이 웬 말이나? 내 딸이면 어디 보자.

흰 구름이 일어나고 안개가 자욱해진다. 심 봉사가 감았던 눈을 크게 뜬다. 심 봉사가 기뻐 달려들며 딸의 손을 덥석 잡는다.

심 봉사: 이게 누구냐? 목소리는 같다마는 얼굴은 초면일세. 세상 사람들, ㉠ (이)라더니 나를 두고 한 말일세. 어둡던 눈을 뜨니 황성이 웬일이며 인당수에 빠진 딸은 황후가 되었구나! 열씨구나, 이런 경사 또 있을까.

- ① 走馬看山 ② 緣木求魚 ③ 明若觀火
④ 苦盡甘來 ⑤ 錦衣還鄉

[17~18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- 季康子問政於孔子. 孔子對曰: “政者, 正也, 子㉠帥以正, ㉡孰敢不正?”
○ 子貢問政. 子曰: “㉢足食, 足兵, 民信之矣.” 子貢曰: “必不得已而去, 於斯三者, ㉣何先?” 曰: “去兵.” 子貢曰: “必不得已而去, 於斯二者, 何先?” 曰: “㉤去食. 自古皆有死, 民無(㉦)不立.”

- 『논어』 -

17. ㉠~㉦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㉠: 술선하다 ② ㉡: 누구
③ ㉢: 풍족하게 하다 ④ ㉣: 무엇
⑤ ㉤: 가다

18.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㉦에 알맞은 것은?

- ① 正 ② 政 ③ 食 ④ 信 ⑤ 兵

19.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?

답장 ✕삭제 스텝 신고 목록 위 아래

제목 <고전 명구> 사람이 다 사람인가 인쇄

보낸 날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

보낸 이 한국고전번역원

<고전 명구>

사람이 다 사람인가

반드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실제의 일을 행한 뒤에라야
사람이라는 이름에 걸맞을 수 있는 것이니,
그렇지 않으면 이름은 비록 사람이라 할지라도
실제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.

- 이재, 『도암집』 -

광대 공길은 연산군에게 “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,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,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,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. 임금이 임금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으면 아무리 곡식이 있더라도 내가 먹을 수 있으랴”라는 말을 쏟아내고는, 곤장을 맞고 귀양을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

공길이 인용한 『논어』의 이 말이 어디 임금, 신하, 아버지, 아들에게만 적용되었습니까. 이름을 가진 세상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입니다.

- ① 名實相符 ② 言必再思 ③ 推己及人
④ 與世推移 ⑤ 先公後私

20.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



- ① 以利交者, 利窮則散.
② 精神一到, 何事不成.
③ 施恩勿求報, 與人勿追悔.
④ 待有餘而後濟人, 必無濟人之日.
⑤ 有餘者, 常譽人, 不足者, 常毀人.

[21~22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金庾信, <중략> 相語曰: “吾聞見危致命, 臨難忘身者, ㉠烈士之志也. 夫一人致死, 當百人, 百人㉡致死, 當千人, 千人致死, 當萬人, 則可以㉢橫行天下. 今國之㉣賢相, 被他國之拘執, 其可畏不犯難乎?” 於是, ㉤衆人曰: “雖出萬死一生之中, 敢不(㉦)將軍之令乎?”

* 金庾信(김유신): 사람 이름
- 『삼국사기』 -

21. ㉠~㉦ 중 짜임이 다른 하나는?

- ① ㉠ ② ㉡ ③ ㉢ ④ ㉣ ⑤ ㉤

22.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㉦에 알맞은 것은?

- ① 抗 ② 號 ③ 拒 ④ 違 ⑤ 從

[23~25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李尙毅, 兒時, 性甚輕率, ㉠坐不耐久, 言輒妄發. 父兄憂之, 頗有㉡責言. 李公佩小鈴以自戒, 每聞鈴聲, 猛加警飭, 出入坐臥, 未嘗㉢捨鈴. 今日減一分, 明日減一分, 及至中年之後, <중략> 渾然天成. <중략> 後人之戒㉣輕薄子弟者, 必㉤舉李公, 以爲則云.

* 李尙毅(이상익): 사람 이름 * 輒(첩): 번번이
 * 佩(패): 차다 * 鈴(령): 방울
 * 飭(칙): 삼가다 * 渾(혼): 온전하다
 - 『공사견문록』 -

23. ㉠~㉤ 중 행위의 주체가 같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- ① ㉠, ㉡ ② ㉠, ㉢ ③ ㉡, ㉣
 ④ ㉠, ㉢, ㉣ ⑤ ㉡, ㉣, ㉤

24. ㉣의 독음으로 옳은 것은? [1점]
- ① 천대 ② 각박 ③ 경박 ④ 천박 ⑤ 경멸

25. 윗글의 주제와 관계있는 것은?
- ① 格物 ② 修身 ③ 包容 ④ 治國 ⑤ 疏通

[26~27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諸將, <중략> 問信曰: “兵法, 右㉠倍山陵, 前左水澤, 今者, 將軍㉡令臣等, 反背水陣, 曰破趙會食, 然竟以勝, 此何術也?”

信曰: “此在兵法, 顧㉢諸君不察耳. 兵法不曰‘陷之死地而後生, 置之亡地而後存’? 且信非得素拊循士大夫也, 此所謂驅市人而戰之, 其勢, 非置之死地, 使人人自爲戰, 今㉣予之生地, 皆走, ㉤寧尙可得而用之乎?”

* 趙(조): 나라 이름 * 拊(부): 어루만지다
 - 『사기』 -

26. ㉠~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㉠: ‘등지다’라는 뜻이다.
 ② ㉡: 의미상 ‘使’와 바꾸어 쓸 수 있다.
 ③ ㉢: ‘諸將’을 가리킨다.
 ④ ㉣: 행위의 주체는 ‘信’이다.
 ⑤ ㉤: ‘安寧’의 ‘寧’과 뜻이 같다.

27. 윗글의 흐름으로 보아 <보기>의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곳은?

<보 기>
 臣等不服.

- ① (가) ② (나) ③ (다) ④ (라) ⑤ (마)

[28~30]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春眠不㉠覺曉, 處處㉡聞啼鳥.
 夜來風雨聲, 花落知多少.

* 啼(제): 울다
 - 맹호연, 「春曉」 -

(나) 雨歇長㉢堤草色多, 送㉣君南浦動悲歌.
 大同江水何時盡, ㉤別淚年年添綠波.

* 歇(혈): 그치다
 - 정지상, 「送人」 -

28. ㉠~㉤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㉠: 깨닫다 ② ㉡: 들리다
 ③ ㉢: 독 ④ ㉣: 임금
 ⑤ ㉤: 이별

29.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<보 기>

ㄱ. (가)의 형식은 오언절구이다.
 ㄴ. (가)의 셋째 구와 넷째 구는 대우(對偶)를 이루고 있다.
 ㄷ. (나)의 운자(韻字)는 ‘多’, ‘歌’, ‘波’이다.
 ㄹ. (나)의 셋째 구는 ‘大同江水 / 何時盡’으로 띄어 읽는다.

- ① ㄱ, ㄴ ② ㄴ, ㄷ ③ ㄷ, ㄹ
 ④ ㄱ, ㄴ, ㄷ ⑤ ㄱ, ㄷ, ㄹ

30. 위 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(가)는 귀에 들리는 소리를 통해 바깥 풍경을 형상화하고 있어.

② (가)에는 시적 화자의 정감이 직설적으로 드러나 있군.

③ (나)에는 이별의 공간이 나타나 있어.

④ (나)에는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군.

⑤ (가)와 (나)에는 공통된 소재가 쓰였어.



* 확인 사항

○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하시오.